자연을 벗 삼아 커피 한잔…

북경 '농촌 카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 북경 회유구 상왕욕촌의 하인카페를 찾은 사람들이 한가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다.

북경 농촌의 카페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북경 회유구 외곽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 상왕욕촌. 한때 조용했던 이곳이 북적이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바로 푸른 산과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한 카페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요즘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려는 도시인들이 상왕욕촌으로 몰려들고 있다.

상주인구가 약 100여명에 불과한 이 작은 마을에는 3개의 카페가 들어서있다. 주말이 되면 그중 하나인 하인카페에만 하루 500여명의 손님이 몰린다.

북경 도심에서 약 50키로메터 떨어진 하인카페는 산으로 둘러싸인 채 호수 옆에 자리하고 있다.

카페 주인 위명은 3년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독특한 지리적 생태 환경에 매력을 느껴 이곳에 휴식을 위한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도시 카페와는 다르게 이곳에선 넓게 펼쳐진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호수 옆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전부 날아갑니다." 올해만 하인카페를 세번이나 방문한 윤연씨의 말이다.

중국의 커피 소비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카페인 효과를 얻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보다 아늑하고 목가적인 농촌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음미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인카페에서 불과 200메터 떨어진 미락카페에서도 비슷한 정경이 펼쳐진다. 지난 2022년 9월 왕춘력은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산속에 위치한 아버지의 게스트하우스 부지에 카페를 개업했다.

젊은 감성의 그는 전통 중국 요소와 혁신 요소를 조화시켰으며 커피 메뉴에 차도 추가했다.

"이곳 카페의 경치는 비 오는 날 가장 아름답습니다. 산들 사이로 안개가 피여오르거든요." 왕춘력은 아침 8시에 도착해 하루종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손님도 있다고 전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6월 룡선축제 기간 메이뤄카페는 사흘 만에 7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카페 사업을 벌이면서 마을도 활기를 얻었다. 한때 농업에 종사하는 로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곳에서는 이제 젊은 방문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상왕욕촌당지부 서기 왕학영은 "젊은이들의 넓은 시야와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마을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의 카페가 인기를 얻으면서 농산물 판매와 숙박, 료식업이 덩달아 탄력을 받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왕욕촌을 포함해 회유구에 위치한 농촌 카페는 70여개에 달한다. 이제 농촌 카페는 절강, 중경 등 지역에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농촌 카페는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 충족, 농촌 관광 발전 촉진, 농촌 재편을 실현하며 현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신화사

여름 성수기 맞은 국내 관광지들 무비자 정책 덕에 랜드마크마다 북적

올 7월—8월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국내의 랜드마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요즘 북경 고궁박물원은 판매 시작 후 몇초도 안돼 입장권이 매진되고 있다. 하루에 판매되는 입장권은 8만장에 달한다. 여름 관광 물결은 북경을 넘어 광주, 상해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많은 려행객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중국 려행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 려행'이라는 류행어를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다채로운 관광 상품으로 달아오르는 '중국 려행'

중국 온라인 려행 써비스 업체 씨트립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관광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여름 700만장에 육박하는 인바운드 항공권이 예약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3% 급증한 수치다.

광주 해관(세관)에 따르면 올 7월 광주의 하루 출입경 인원은 4만 4,000명(연인원, 이하 동일)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 나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확대된 1,464만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중 무비자 입국 인원은 854만명으로 190%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류입은 우리 나라의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의 효과로 평가된다.

강소성 소주시는 지난달 30명의 뽈스까인 관광객을 맞았다. 이들 중 대다수는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관광객이였다.

"이번에 소주를 처음 방문했는데 도시의 오랜 력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소주의 정원 건축, 중국 전통 문화와 예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뽈스까에서 온 한 젊은 관광객의 설명이다.

소주문화국제려행사 사장 장화명은 려행사들은 외국인 고객들이 현지 생활을 직접 체험하도록 소규모 맞춤형 관광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주 전통 연극인 평단 공연, 고대 운하를 유람하는 야간 보트 체험 등의 관광 상품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관광도시가 인기를 끌고 있음과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도 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운남, 광서 등 지역을 려행하며 틱톡 등 플래트홈을 통해 이곳의 계단식 논과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호남성 장가계 역시 인기다. 올 상반기 인바운드 관광객 91만 1,500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569%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편의성 UP

무비자 정책 확대가 인바운드 관광 성장의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광주 해관 직원 라개정은 "중국 무비자 정책의 대상 국가와 통상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광주에 하루 평균 약 2만명의 관광객이 류입되는 등 인바운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강소성출입경변방총검사소의 탕범룡은 "올 들어 6개월간 남경통상구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방문객은 1만 1,000명이 넘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5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우리 나라는 최근 몇달간 외국인들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전자결제 써비스를 더 편리하게 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이 밖에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문화, 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국내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였다. 예약이 필요한 명소의 경우 씨트립이 600개 이상의 국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티켓 구매를 돕기 위해 다양한 언어 써비스와 결제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 신화사

[려행수기] ◎ 리창렬

내가 가본 신강

2023년 9월, 나는 안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탐색족인 신강 쌍비 8일 려행'(探索族印新疆双飞 8日游) 길에 올랐다.

12일, 우리 일행 넷은 장춘에서 비행기로 우룸치에 도착했다. 려행사 접대차는 우리를 해룡천호텔(海龙泉酒店)로 안내하였다. 첫날 행사는 입주 수속뿐이라 간단했다. 입주 수속을 마치고 나니 오후 5시가 되였다. 우룸치 시간은 연길보다 2~3시간 늦다. 여기 사람들은 10시 30분에 출근하고 19시 30분에 퇴근한다.

호텔에 자리잡은 우리는 귀중한 자유시간을 놓칠세라 명성 높은 따바자(大巴扎)로 달려갔다. 따바자는 위글족말로 무역시장이라는 뜻이고 전칭은 '신강국제따바자'이며 우룸치시 천산구에 위치해있다. 건축면적은 10만평방메터에 달하고 이슬람 문화와 건축, 민족상업무역, 오락, 음식업을 종합운영하는 장소이며 신강 려행업 제품 집결지와 전시쎈터로서 신강의 창구, 중앙아시아의 창구로 불리운다.

따바자 미식거리는 따바자 무역시장의 한개 구성부분으로서 건축면적이 8천평방메터에 달한다. 미식거리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었고 너비는 30~40메터 돼보이는데 거리 량켠에 음식매대가 즐비하게 설치되여있었다. 독특한 미식 종류가 많고도 많았다. 구운 낭(烤馕), 구운 만두(烤包子), 꼬치구이(烤串), 통양구이(烤全羊), 손으로 뜯는 양고기(手抓肉), 샤브샤브(火锅)외에도 이름 모를 각종 밀가루음식과 민물고기류들도 많았다.

미식거리는 려행객으로 꽉 찼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붐비는 인파는 룡이 꿈틀거리는 듯하였다.

미식거리 중간은 식사구역인데 사면팔방에서 모여온 려행객들은 독특한 맛을 풍기는 신강 미식에 푹 빠졌다. 그들의 입은 초강의 효률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맘껏 골라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처음으로 신강 음식을 맛보는 식객들의 격동과 희열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이 세상은 구경거리가 많아 사는 맛이 나고 구경군이 많아 구경거리가 더 많은 것 같다.

미식거리 량쪽 음식 판매 매대와 중간 식사구역 사이는 2~3메터 너비의 보행도로인데 려행객들이 구경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신강에는 47개 민족이 살고 있다. 우리 눈에는 위글족, 까자흐족, 몽골족, 회족 등의 외모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

음식매대의 경영주는 대부분 당지 소수민족이다. 그들과 려행객 사이에는 언어 장애가 있지만 손시늉과 얼굴 표정으로 소통이 잘되였다. 신강 당지 사람들은 값을 흥정하는 습관이 없다고 한다. 부르는 것이 값이고 사는 사람은 사고 안 사는 것을 결정할 뿐이지 쌍방간에 가격 흥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이드의 사전 설명에 의해 려행객들은 이미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였고 당지 경영주들 역시 비록 한어 발음은 서투르지만 열정적이고 우호적이여서 매매는 질서있게 잘 진행되였다.

신강은 중국의 서북부에 위치해있다. 면적은 166만평방키로메터로서 동북3성 총면적의 2배도 더 되지만 인구는 겨우 2,585만명이다.

신강은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이고 군사적 요새로서 전략가들이 서로 노리는 지역이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문화, 경제 교류 중심지였다.

신강의 지형 특점은 '삼산이분'(三山二盆)이다. 삼산은 북쪽의 알따이산, 남쪽의 곤륜산, 중간의 천산을 가리킨다. 이분은 중갈분지와 타림분지를 가리킨다.

알따이산에는 붉은색 보석과 남색 보석이 많이 나고 72개 골짜기마다 황금이 엄청 많이 매장되여있다. 곤륜산은 중국의 룡맥이고 만산지조라 한다. 유명한 화전옥(和田玉)도 곤륜산의 보물이다. 천산에서는 설련(雪莲), 홍화(红花), 홍경천(红景天)등 귀중한 약재 백여가지와 천산옥이 많이 난다고 한다.

천산은 신강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천산 이남을 남강이라 하고 천산 이북을 북강이라 한다. 남강에는 타림분지가 있고 북강에는 중갈분지가 있다. 이 두 분지는 거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고로 불리운다.

신강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민족이 많고 인구가 희소하여 내륙지구보다 색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다.

13일, 우리는 커커퉈하이(可可托海) 유람구로 향했다. 이 유람구는 알타이지구 부운현(富蕴县)에 위치해있다. 우룸치에서 커커퉈하이까지는 뻐스로 500여키로메터이고 길 량켠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사막지대이다. 커커퉈하이는 바다가 아니다. 몽골어의 뜻은 푸른 물굽이고 까자흐어의 뜻은 푸른 밀림이다.

풍경구에는 이르띠시강(额尔齐斯河) 대협곡이 있다. 강을 거슬러 협곡으로 가면서 보니 강물이 맑고 투명해 밑바닥까지 속속 들여다보인다. 가을바람이 강에 하얀 꽃가루를 뿌린다. 강물은 산허리에 감겨 발버둥하다 끝내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다. 청산은 말없이 품에 안긴 강물을 쓰다듬어주고 떠나가는 강물을 푸른빛으로 바래준다.

협곡은 깊고 고요한데 지세가 가파르고 경치가 수려한 산봉우리가 한눈에 안겨온다. 산봉우리에는 신종산(神钟山)이 하늘을 떠이고 우뚝 솟아있다. 신종산의 뒤쪽은 일망무제한 산림이고 앞쪽은 아슬하게 낮은 이르띠시강이다. 산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는 사원에 걸려있는 종(钟)같이 생겼다 하여 신종산이라 부른다.

(다음기 계속)

쵸몰랑마봉풍경구 길림 관광객에 입장권 면제 실시

최근 시가쩨시(日喀则市)는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가쩨를 지원한 길림성 등 4개 성(시)의 관광객에 대한 무료 개방 결정을 발표했다. 무료 범위는 쵸몰랑마봉풍경구 입장권(원가 160원/명)과 관광승차권(원가 120원/명)이다.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시가쩨시 정일현 자궈향), 관광뻐스환승쎈터(시가쩨시 정일현 자시종향)에서 각각 실제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한 다음 무료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으며 관광뻐스도 무료이다. 활동 기간 모든 관광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무료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로 관광뻐스를 각각 1회 탑승할 수 있다. 단, 관광객이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 할인 조치를 향유할 수 없다. 무료 관람 조건에 부합되는 관광객이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뻐스환승쎈터에서 유료 구매를 완료한 경우 표를 구매한 당일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뻐스환승쎈터에 가서 환불을 취급할 수 있다. 시간이 초과되면 환불할 수 없다. 무료 관람 조건에 부합되는 관광객이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차환승쎈터 이외의 기타 경로(온라인 플래트홈 포함)에서 이미 입장료, 차표를 구매한 경우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차환승쎈터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쵸몰랑마봉풍경구내에서의 류숙, 음식 등 기타 써비스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 인민넷